

청소년 독서교실활동*

한 승 희*
노 혁
한 석 실

- I. 프로그램의 기본철학
- II. 프로그램의 방법론
- III. 프로그램의 구성
- IV. 프로그램의 대상과 활용지침
- V. 프로그램에서-책과 인생

I. 프로그램의 기본철학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안내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독서라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독서의 세계」라는 말을 쓸 경우에는 이처럼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흔히 사람들은 「독서의 세계」를 「독서」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 만일 초·중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독서지도를 하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들 수준에 적합한 좋은 책(소위 양서)을 골라서 읽힌 다음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감(독후감)을 쓰게하는 것에서 독서지도가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독서의 세계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독서의 세계란 무엇인가?

독서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책이나 독서활동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경우에도 우리는 결코 그들의 합의된 생각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소설가는 소설가대로 문학 평론가들은 평론가대로 또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서로 다른 독서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도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다시말하면 독서의 세계란 어떤 단일한 객관적 세계

*이 논문은 본 원의 1992년도 수련거리개발 연구사업인 "청소년 독서교실 활동"을 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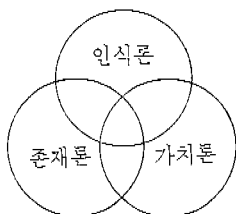
**공동연구자는 본 개발원의 한승희(연구위원), 노혁(연구원), 한석실(연구원)임.

가 아니라 개인들의 마음속에 서로 다르게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독서의 세계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독서의 세계는 어떤 단일하고 표준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래야만 한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소위 원인 *cause*→결과 *effect*의 과학적인 인식론을 가진 실증주의자들로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물질적인 실재로 환원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서의 세계에서도 그들 독서의 세계가 어떤 단일하고 검증가능한 객관적인 실재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서의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는 본 프로그램에서 택하고 있는 철학적인 인식론의 문제로서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인 원인→결과 패러다임의 오류를 인정하고 총체적 접근의 관점을 상정한다. 본 프로그램 활동의 철학적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이 바탕을 둔 철학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철학적 입장에는 인식론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존재론과 가치론적 준거를 함께 세우고자 한다. 이는 실재(지식)에 관한 인식론적 입장이 실재 *reality*의 본질을 다루는 존재론 *ontology*과 가치론 *axiology*과 상호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타당화를 위한 준거설정 영역〉

인식론적 논의와 가정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는 현상을 인식하는 기본 전제이다.

지식의 본질에 관한 인식론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체-객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 여기에 따르는 논쟁은 주체-객체 관계의 분리가능성을 전제하는 이원론과 그것을 부정하는 일원론 또는 상호작용론에 관한 것이다. 「주체-객체」의 관계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자.

“누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든가 “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든지 “왜 그런가?” 등등의 질문을 던질 경우에 우리는 지식의 본질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에 있는 이원론(주관론 vs 객관론)과 맞닥뜨리게 된다. 주관론 *subjectivism*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이 순전히 개인적인 기호, 의견, 신념, 취향, 편견 등에 달려 있다고 보는 생각이며, 객관론 *objectivism*은 판단 또는 결정이 주체의 저편에 있는 궁극적이고 확고한 기준 또는 준거에 의한다고 보는 철학적 주장이다. 따라서, 인식론적 주관론은 모든 대상은 주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구성됨을 가정하는 입장으로 정의된다(Runes, 1983 : p. 320). 이러한 관점은 흔히 상대론 *relativism*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인식론적 실재론 즉, 객관론은 지식의 대상이 주체의 밖 *out there*에 있는 또는 주체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 지식이란 지식의 산출이나 그 과정에서 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성과 탈역사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상정된다. 따라서 지식이란 주체가 객관적인 대상을 강력하고 정련된 탐구 방

법을 통해 정확히 파악했을 때 획득된다. 지식의 본질에 관한 주관론과 객관론을 좀 더 살펴 보자.

주관론은 현상학, 해석학, 상징상호작용론, 지식사회학 등의 여러 철학적 입장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학적 입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론의 본질적 특징은 실재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신념이 그 근저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리, 객관성, 지식 등을 어떤 특정시대, 특정 사회에서의 인간에 의한 산물로 본다는 점이다. 사회적 산물인 지식은 실재가 여러 다른 사회 집단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듯이, 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 여과되며 해석된다. 실재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지식의 진리성 검증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반대하는 번스타인과 쿤 및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주관적 의미의 구조가 모든 지식 내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해밀톤(Hamilton, 1974) 등의 학자들에 의해 강력히 옹호된다.

결국 주관론자들에 의하면, 지식이란 불가피하게도 어떤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주체의 사고와 의식에 관계된다는 것이다. 즉, 지식이란 주체가 자신이 발견하는 상황의 의미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 깊이 불박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본질에 대한 위와 같은 상대론적 입장은 지식의 주관적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실증주의자 필립스(Phillips, 1983)는 의미 *meaning*와 진리 *truth*간의 개념적 구분(그는 이 구분을 결정적 구분이라 부른다)을 통해 지식의 주관성을 통렬히 반박하면서, 실증주의에 대한 최근의 비판을 일축하려 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실증주의에 대한 비

판은 '의미'와 '진리'간의 개념적 구분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주장을 들어 보자.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주장이 의미있기 위해서는 그 주장이 원칙상 논리적으로 사실이려면, 검증이 가능하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경험적 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검증되지 않은(그러나 검증이 가능한) 명제라면 그것은 지식이라고 보다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식이란 정당화된 신념인 것이다(p. 11)

따라서 필립스는 지식의 진술을 검증할 방법으로서 먼저 의미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실의 문제를 확인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의 이런 방법의 타당성은 나중에 좀더 논의하기로 하자.

결국 필립스와 같은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객관론은 지식의 진리성 *truth*과 타당성 *validity*을 판단할 어떤 영속적이고 탈역사적이며 보편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증거를 전제한다. 주관론 또는 상대론과는 달리 이 객관론은 주체와 무관한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지식관으로서, 지식이란 주체의 앎의 과정 및 그 의미의 해석에서 주체와는 독립적인, 즉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흔히 이 객관론은 앎의 주체를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지식은 주체가 그에게 제시되는 대상을 강력한(세련된) 탐구 방법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때 얻어지는 것으로서 설명된다. 이 점에서 주체 vs 객체의 엄격한 분리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주체는 객체로서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인식하

게 된다. 이는 주체가 자신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어떤 특정 방식으로 지식을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간의 관계에서 주체 자신의 의미 생성의 자생적 과정의 여지가 배제된 관점인 것이다. 결국 이 주체 vs 객체 관계의 분리 가능성 여부가 인식론적 준거 탐색의 핵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링컨과 구바(1985)는 주체와 대상간에 야기되는 “반응성 *reactivity*”, “비결정성 *indeterminacy*” 및 “상호 작용 *interaction*”의 개념들을 상정하면서 실증주의 인식론에 함축된 분리의 오류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 현상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피험자들이 연구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미세한 어떤 자극에도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Guinea pig effect”, “Hawthorn effect”, “Pigmalion effect”, “John Henry effect” 등의 반응 효과는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비결정성의 개념 또한 주체-대상간의 분리를 비판한다. 이 생각은 물리학에서의 하이젠버그(Heisenberg)에 의한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도 강력히 옹호된다. 이 원리는 관찰자(주체)의 대상에 대한 궁극적 영향의 예를 보여 주는데 이미 물리학의 영역에서 벗어난 철학적 인식론적인 맥락으로 확장된다.

결국 이제까지는 논의는 지식의 본질과 관련한 인식론적 측면 즉 주체 vs 객체의 관계가 얽힌 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였다. 인식론적 논의는 실증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 전제의 하나인 주체 vs 객체의 상호 독립성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지식의 개념을 규정할 때 바로 주체 vs

객체간의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상호 작용 관계를 인정하는가의 문제는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선 연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 vs 객체간의 상호 독립성이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처럼 오류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존재론적 논의와 가정

실재는 주체×객체간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만들어 진다.

지식의 본질 문제를 논의하는 데 인식론의 영역과 존재론의 영역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는 지식의 개념이 주로 “무엇이 실재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식은 실재의 존재 및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밀접히 관련된다.

존재론적 입장에 대해, 링컨과 구바(1985)는 4수준의 실재, 「객관적 실재」, 「인식된 실재」, 「구성된 실재」, 「생성된 실재」로 설명한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객관적 실재의 입장은 유형적 실재가 존재하며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리적 실재 *physical reality*, 시간적 실재 *temporal reality*, 사회적 실재 *social reality* 등이 모두 존재하며 충분한 시간과 이성적인 탐구 방법을 통해 그러한 실재들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식된 실재의 입장은, 실재는 존재하나 그것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 때의 인식 *perception*이란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관점을 의미한다.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처럼, 이 입장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객관적 실재와 인식된 실재와의

차이는, 전자가 실재는 어떤 점에서 모두에게 정확히 알려질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후자는 아무도 실재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믿는 점에 있다. 그러나 둘 다 실재가 주체와는 독립적으로 저 건너편에 존재한다고 믿는 점에서 동일한 존재론적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구성된 실재의 입장에서, 실재는 개인들의 정신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주체와 독립적인 실재가 별개로 존재하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만일 실재가 주체의 밖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갖는다. 이 입장은 수없이 많은 구성된 실재를 가정하며 다수의 실재 *multiple realities*의 존재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실재의 입장은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극단적인 견해로서 물리학 분야의 새로운 경향인 양자물리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입장의 실재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실재의 존재 유무에 대한 신념에 의해 크게 두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객관적 실재나 인식된 실재는 둘 다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를 인정하며 반면에 구성된 실재나 생성된 실재는 그것을 거부한다.

지식의 본질에 대한 이와 같은 논란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심리학이 추구할 목표는 실증주의적 전통과학에서 주장하는 예언 및 통제가 아니라 인지적이며 생성적인 과정을 그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베이콘(Bacon, 1972)이나 사회학 분야에서 “해석적 사회학”을 주장하는 포페(Pope) 또는 “구성적 선택론”을 제시하는 켈리(Kelly) 등의 주장, 그리고 환경의 외적 측면(자극)의 구조적 기능을

서술하거나 외부인의 관점을 채택하기 보다는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 이해를 강조하는 소위 비스테헨 접근 *Verstehen approach* 등 그리고 교육학 분야에서 영(M. Young, 1971)과 같은 지식 사회학자들의 입장이 대표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초점은 지식의 본질과 관련하여 “단일 실재 *single reality*”를 거부하는 데 모아진다. 단일 실재의 입장은 원인→결과와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파악하려는 뉴턴 이래 고전 물리학적 관점이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원주의적 입장으로,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것은 무엇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카르납(Carnap)이나 험펠(Hempel) 등과 같은 실증주의 과학철학자들의 존재론적 가정이 이를 대표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다른 편의 “다수의 실재”와의 논란이 바로 존재론적 문제의 핵심인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최근에 브르너(1987)는 이러한 난문제의 해결책으로 넬슨 굿맨(Nelson Goodman)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외현적 세계란 정신 *mind*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며, “세계를 만들어 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활동들은 손이 아니라 머리로 또는 언어나 기타 다른 상징 체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세계는 지적 활동 예컨대, 예술가의 지적 활동이나 과학 또는 일상 삶에서의 지적 활동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세계(이는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로부터 구성되어져 왔다. 그는 “여러 다른 것들 보다 더 실재적인 어느 한 특정 세계는 없다.”라고 말하며

존재론적인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증주의에서 존중하는 물리적인 세계관 역시 어떤 특권을 갖지 않는 만들어진 한 세계관에 불과하다. 세계는 사교의 산물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는 칸트의 세계관까지 거슬러 간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 모두 마음을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선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선험적 지식은 모든 추론에 선행한다고 본다. 그러나 넬슨 굿맨은 정신의 산물로서의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칸트의 선험적 지식과는 달리 상대론적인 견해를 보인다. 즉, 지식은 절대적인 또는 선험적인 어떤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창조를 이루는 여러 종류의 구성 *constructions*들로부터 시작한다(브트너, p. 97).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과 같이, 실증주의의 존재론적 가정 즉, “세계”(실재)는 유일무이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다.

가치론적 논의와 가정

지식의 목적은 다원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가치론적 논의의 핵심은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한다. 지식과 관련한 가치론적 근본 질문은 “무엇이 가치로운 지식인가”로 진술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지식이 추구하는 목적(또는 지식의 가치에 대한 정당화)에 관한 것으로 이 경우에 두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는 지식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지식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며 둘째는 지식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으로 지식이 어떤 다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흔히 전

자를 지식의 내재적 가치로 후자를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식의 가치에 대한 또 다른 논쟁점은 지식의 진리성 *truth of knowledge*을 어떻게 검증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지식의 가치에 대한 정당화의 문제보다 지식의 진리성 검증의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는 지식 그 자체가 개념적으로 반드시 진리성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분석 철학에서도 명제적 지식의 진리 조건을 신념 조건 및 증거 조건과 더불어 얹의 주요 조건으로 생각하는 데에서도 그 중요성이 명확해 진다.

지식의 진리성 검증에 관한 여러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앞서 살펴본 객관론(실증주의) vs 주관론(상대론)의 문제에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가치론적 논의는 지식의 진리성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에 내재된 오류에 초점을 두게 된다. 최근에 필립스(1983)와 같은 실증주의자들은 진리의 검증이 의미 *meaning*와 사실 *truth*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립스는 지식을 “정당화된 진실된 신념”으로 정의하면서 진술된 어떠한 주장들도 타당화되거나 아니면 거부될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립스는 그 자신이 “결정적 구분”이라 부르는 “의미”와 “사실”의 개념 구분을 통해 상대론자들의 지식에 대한 견해를 비판한다. 그는 사실의 문제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의미가 결정된 후에야 실제로 답하여 질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타당성은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의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믿음 즉, 타당성이 경험적 증거 위에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에 붙박혀 있는 오류는 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과학에서도 노출되고 있다. 사회현상의 복잡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과학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사실”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느 것에도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지식의 정당화에 정치적인 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하버마스(Habermas, 1978)의 저작에서 보여 주듯이, 이론적 논쟁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결책이 반드시 경험적 검증으로부터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자연과학에서조차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이미 물리학자들은 뉴턴의 우주에 대한 관점인 원인-결과 *cause-effect* 패러다임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논쟁들이 결코 경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는, 현재 논쟁의 외중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미에 관한 것들이며 그리고 의미에 관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사실의 질문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Donmoyer, 1985). 정말로, 사실에 관한 질문은 의미에 관한 질문이 해소된 다음에야 답하여 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용어(예: 지구, 둥글다, 평평하다)의 의미에 관해 합의한 다음에야 “세계는 둥글다”라는 신념이 사실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에 관한 문제들은 “세계”에 관한 명제들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언어가 사용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떤 명제의 진·위가 경험적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적 증거는 어떤 언어의 타당성을 밝힐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어는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적

절·부적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필립스는 의미와 사실의 문제를 구분함으로써 여러 대안적인 주장들을 타당화하거나 거부할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돈모이어(Donmoyer, 1985)는 실증주의자들이 신봉하는 검증 준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 비판의 핵심은 필립스가 제시하는 결정적 구분(의미와 사실의 구분)이 함축하고 있는 애매성 또는 혼동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필립스가 의미와 사실의 구분과 관련하여 언어가 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언어 자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위라기 보다는 적절·부적절의 문제인 점을 파악하지 못한 필립스의 의미와 사실의 개념적 구분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타당성 검증의 준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의 검증에서 항상 상대론만이 타당한 것인가? 경험적인 증거가 여러 대안적인 해석(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떠한 해석도 다른 것과 똑같이 타당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필립스가 지적하듯이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은 여러 다른 대안적인 해석들의 상대적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합의를 하고 있다. 상대론이 안고 있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 툴민(Toulmin, 1961)은 의미있는 한 해결책을 주고 있다. 그는 과학적인 합리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상충하는 해석(주장)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합리성이 어떤 선형적 보편 준거의 적용을 전제한다고 주장하는 쿤과는 달리, 그는 과학에서 목적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상충하는 개념적 구조 또는 언어의 상대적인 적절성을 평가할 여러 다른 준거

들은 그 목적을 달리 함으로써 타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비유에 의하면 “과학의 목적이 무엇인가?”의 질문은 마치 “게임의 목적이 무엇인가?”의 질문과 동일하다고 한다. 흔히 게임의 목적이 상대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단지 보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솔리테르(Solitaire) 같은 비경쟁적 게임은 어떤 과학(예: 생물학)의 목적이 “예언”이 아니라 “분류”에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틀민은 개개의 과학이 모든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들에 의해 지지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만일 학문 내에서 본질적인 불일치가 생기게 되면 그 학문은 목적을 달리하는 여러 하위 학문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상충하는 패러다임들(예. 뉴턴 물리학vs 아인슈타인 물리학)간의 적절성은 모든 과학적 활동을 포괄하는 보편적 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학문의 목적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의 초점은 타당성이 경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실증주의의 기본 가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들의 협소한 생각은, 언어가 지식의 적절성 검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즉 상이한 언어 사용에서 야기되는 지식의 목적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언어는 진·위의 문제가 아닌 적절·부적절의 문제, 다시 말하면 언어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상충하는 해석들의 상대적 가치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틀민이 지적하듯이 상충하는 패러다임들의 적절성은 보편적 증거

에 의해서가 아니고 특정한 증거들(목적)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결

독서의 세계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진다.

앞의 논의를 통해 설정한 세 전제: 「주체×객체의 상호작용」, 「지식의 생성적 본질」, 「지식의 목적의 다원성」은 바로 원인→결과와 실증주의 패러다임과 대조되는 관점을 지탱해 주는 기본 가정들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 관점을 「총체적 접근」이라 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독서의 세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독서의 세계도 개인의 밖에 절대 불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산물로서의 독서의 세계는 독서에 관한 다양한 지적활동을 통해서 즉 독서에 관련한 의미 *meaning*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예컨대,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하고 독후감을 쓰게하는 활동에서,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에 관한 교사와 아이들간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도,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사는 행위를 통해서도, 또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독서의 세계를 안내해 주거나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바로 이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여러 활동들은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안내해 주게 된다. 정신의 산물로서 독서의 세계가 다양하게 만들어 지는 것처럼 그것으로 안내해 주는

활동이나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좋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것이 좋은 독서지도 활동일지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아이들에게 독서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회 저명인사의 말을 들려 주거나, 헌책을 서로 교환하게 하는 캠페인을 벌리게 한다든가, 도서관을 견학시킨다거나, 학급에서 독서클럽을 만들게 한다든가, 스스로의 독서계획을 세워보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바로 그들에게 독서세계를 만들어 주며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된다.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독서의 세계를 인정해야 하며 그 세계를 보다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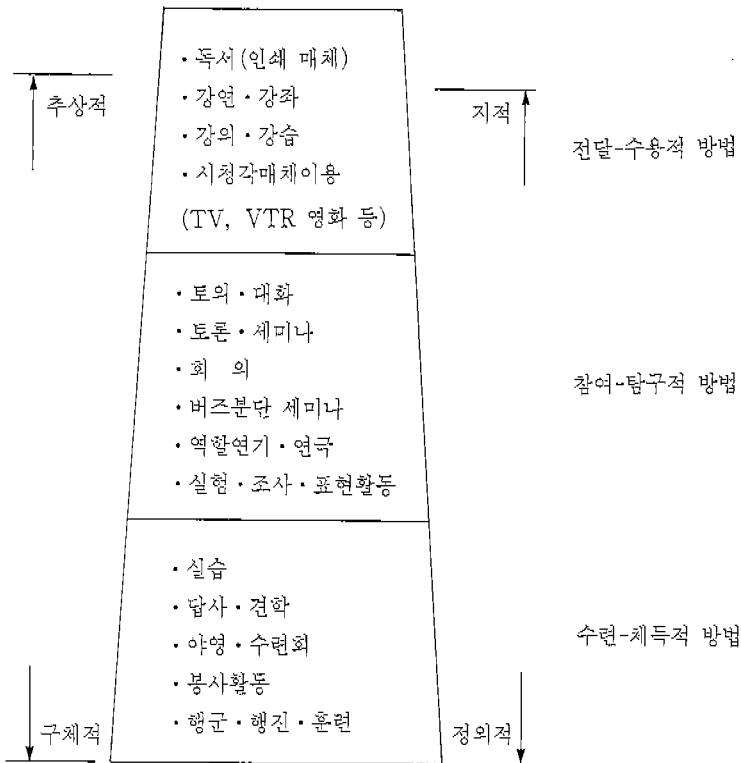
II. 프로그램의 방법론

무한한 독서의 세계가 전제될 때 이곳으로 안내해주는 활동이나 방법이 무한히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들의 독서세계가 그들의 내부에서 정신활동을 통해 무수히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방법론이란 독서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일반적인 지도나 활동 기법을 말한다. 흔히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

<표 1>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다음에서는 각각의 활동에 대한 특징과 준비, 진행절차에 대해 살펴보자.

III.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기초로서 철학적 배경, 방법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는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들을 담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활동들은 대체적으로 인식→탐색→준비→실행의 단계적인 접근을 의도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활동들 간에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 엄격한 순서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음의 <표 3>, <표 4>, <표 5>는 본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표 3>

내용 도표

독서의 세계관 1-0	철학적 배경 1-1	방법론 1-2	구 성 내 용 1-3	대 상 과 활동지침 1-4		
책의 세계로 (인식) 2-0	삶이 숨 쉬는 곳 2-1	나를 키우는 자양분 2-2	공공 도서 관 방문 2-3	책 과 인 생 2-4	내집 책장엔 몇권의 책이 2-5	내가 권하는 책 2-6
책과 만남을 (탐색) 3-0	신중한 선 택 3-1	넓게 다양하게 3-2	불량서적 모의재판 3-3	작가의 생애 와 작품 3-4	영상으로 보는 명작 소설 3-5	
책을 가까이 (준비) 4-0	몸과 마음을 바르게 4-1	그릇모양에 따라 다르게 4-2	작가와 의 대화 4-3	마지막 책 장 을 덮으며 4-4	토론의 열기 4-5	
책과 생활을 (실행) 5-0	생 활 문 고 5-1	매일을 책과 함께 5-2	1년후 나의 모습 5-3	읽고 싶은 책을 나누며 5-4	함께하는 독서교실 5-5	
부 록 참고문헌 6-0						

<표 4>

프로그램 내용 구성표

단 계	목 표	활 동(제목)
2. 책의 세계로 (독서인식)	독서의 필요성 을 인식	1. 삶이 숨쉬는 곳
		2. 나를 키우는 자양분
		3. 공공도서관 방문
		4. 책과 인생
		5. 내집 책장에 몇권의 책이
		6. 내가 원하는 책
3. 책과의 만남 (독서 탐색)	독서에 대한 적 극적인 태도형성	1. 신중한 선택
		2. 넓게, 다양하게
		3. 불량서적 도의제관
		4. 작가의 생애와 작품
		5. 영상으로 보는 명작소설
4. 책을 가까이 (독서준비)	효과적인 독 서기술 습득	1. 몸과 마음을 바르게
		2. 그릇 모양에 따라 다르게
		3. 작가와의 대화
		4. 마지막 책장을 덮으며
		5. 토론의 열기
5. 책과 생활을 (독서 실행)	독서 습관 형성	1. 생활문고
		2. 매일을 책과 함께
		3. 1년후 나의 모습
		4. 읽고 싶은 책을 나누며
		5. 함께하는 독서교실

활동 목표 및 내용
책을 통해 동서고금의 다양한 삶을 읽으로써 자신의 삶에 있어서 책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다양한 독서의 이점을 듣고 독서 동기를 얻는다
공공도서관 방문을 통해 책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스스로 도서관을 찾아보는 기회를 얻는다
명사들의 독서경험과 철학을 통해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독서에 대한 자신의 태도, 독서 실태, 가정환경을 조사해 봄으로써 자신의 독서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한다.
좋은책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불량서적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고 양서를 가까이 하는 태도를 기른다
작가의 삶과 사상, 작품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영상을 통해 명작소설에 접함으로써 명작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얻는다
명사들의 책 소개를 통해 독서 동기를 얻는다
책을 읽을때의 올바른 독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해 읽으로써 올바른 독서태도를 형성한다
여러 문학종류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고 각 문학 형식에 맞는 감상능력을 배양한다
작가와 함께 문학세계에 대해 직접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책을 읽은 다음 감상을 기록하는 습관과 태도를 길러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운다
책을 읽고 난 느낌을 공유함으로써 문학 감상 능력과 비판능력을 키운다
생활문고를 꾸며봄으로써 책과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책을 읽도록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스스로도 독서생활을 일상화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독서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
서로 책을 바꾸어 읽음으로써 책의 활용도를 높인다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어 봄으로써 독서에 대한 바른지식과 태도를 갖춘다

<표 5>

프로그램 활동과 지도기법

단계	목 표	지 도 기 법		
		활 동	1. 강 의 2. 강연식 공개토론	
2. 책의세계로 (독서인식)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시킴	1. 삶이 숨쉬는 곳	★★★★	
		2. 나를 키우는 자양분	★★★★	
		3. 공공도서관 방문		
		4. 책과 인생		★★★★
		5. 내집 책장엔 몇권의 책이		
		6. 내가 권하는 책		
3. 책과 만남을 (독서탐색)	독서에 대한 적극적 인 태도의 향상	1. 신중한 선택	★★★★	
		2. 넓게, 다양하게	★★★★	
		3. 불량서적 모의재판		
		4. 작가의 생애와 작품		
		5. 영상으로 보는 명작소설		
4. 책을 가까이 (독서준비)	효과적인 독서기 술 습득	1. 몸과 마음을 바르게	★★★★	
		2. 그릇 모양에 따라 다르게	★★★★	
		3. 작가와의 대화		
		4. 마지막 책장을 넘으며		
		5. 토론의 열기		
5. 책과 생활을 (독서실행)	독서습관 형성	1. 생활문고		
		2. 매일을 책과 함께		
		3. 1년후 나의 모습		
		4. 읽고 싶은 책을 나누며		
		5. 함께 하는 독서교실		

3. 시청각	4. 게시 및 전시	5. 토론	6. 분임 토의	7. 역할연기 및극화	8. 관찰 및 현장방문	9. 워크숍	10. 구안법	
								2-1-1
								2-2-1
					★★★			2-3-8
								2-4-2
		★★★						2-5-5
							★★★	2-6-10
								3-1-1
								3-2-1
				★★★				3-3-7
★★★								3-4-3
★★★								3-5-3
								4-1-1
								4-2-1
		★★★						4-3-5
							★★★	4-4-10
		★★★						4-5-5
							★★★	5-1-10
							★★★	5-2-10
							★★★	5-3-10
							★★★	5-4-10
						★★★		5-5-9

IV. 프로그램의 대상과 활용지침

프로그램의 대상

- 청소년 수련활동의 하나(정서함양)로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중학생과 고등학생)과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청소년 지도자(학교의

교사 포함)들을 주요 대상 집단으로 한다. 그러나 독서활동에서 특정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관련단체 및 상담·수련기관과 중·고등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교회나 종교단체 등 민간 청소년 관련 조직에도 유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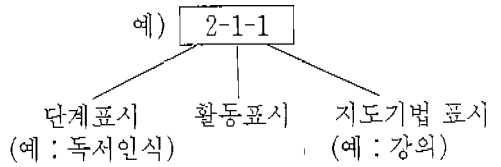
활용지침

-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전에 본 프로그램이 바탕을 둔 철학과 방법론에 친숙해야 한다.
- 본 프로그램의 활동들은 대체로 인식→탐색→준비→실행의 단계적인 접근을 의도하고 있으나 논리적·심리적인 엄격한 순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활용시에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활동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프로그램은 10개의 기본적인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도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교사는 학교의 교육과정목표와 본 프로그램의 목표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청소년 단체나 조직의 지도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지도자용인 프로그램활동집과 청소년용 읽기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러두기

본 프로그램은 몇가지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 프로그램의 각 활동들의 단계 및 지도기법을 구분하는 3개의 수를 사용하였다.




- 프로그램 활동들의 진행과정과 참고자료 등을 구분하는 다음의 상징을 사용하였다.

예)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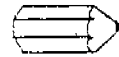
프로그램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점검사항

 _____

프로그램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

 _____

프로그램 활동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및 사항

 _____

프로그램 활동을 마친후 그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점검

**V. 프로그램 예시-책과인생
(명사들의 책읽기 경험소개)**

2-4-2	<p>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명사를 선정하여, 명사들의 인생에 영향을 준 책과 관련된 경험이나 철학을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도록 함으로써, 책읽기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고 책읽기의 동기를 부여해 주도록 한다.</p>
---	--

개
관
및
목
표

활 동



- 독서에 관심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적절한 인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참가자 수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고 좌석 배열에도 유의한다. 장소가 넓으면 음향시설을 점검한다.



- 강사를 소개한다.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한다.
- 강사는 책에 관련된 경험이나 철학을 정해진 시간동안 이야기하도록 한다.
- 강의가 끝난후 참여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
- 강사는 중요점을 요약·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하도록 한다.



* 다음은 청소년 읽기자료 중 명사들의 책읽기 경험 및 철학을 담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에 실린 글에서 뽑은 것이다.

명사들의 책읽기 경험 및 철학에서

□ 나의 인기 비결

학생때는 뭐니뭐니 해도 친구나 후배 특히 여학생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다. 반면 자신을 돌아보곤 열등감에 울기도 하고, 집안이 가난해 행색이 피죤피죤한 탓이라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꽤 따르는 건너 마을의 선배가 무엇보다도 여학생한테 꽤 인기가 있다는 소문에 놀람을 금치 못하여 눈여겨 보았다. 그도 그럴것이 키도 작고 학교도 시시한 데다가 덩치나 말소리 등 어느하나 특별한 매력이 없기에 인기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았던 게다. 마침내 발견한 이유는 독서량이 많아 누구에게나 풍부한 화제와 흥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나 같이 생김새도 별로요, 나쁜 발음에 화술도 빈약한 주제에겐 엄청난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후 닥치는 대로 읽어냈다. 더구나 10,000원은 족히 될 것이라는 그 선배의 장서량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나도 지지않겠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꽤나 읽어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제법 있었고, 한 친구는 부모의 책도 기꺼이 빌려주었다. 마침내 주위의 친구는 물론 여학생한테도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더니 충청도 사투리에도 아랑곳하지않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곤 '야, 이것이구나! 나같은 사람도 책을 읽고 무엇을 좀 아니까 여학생들도 인정하고 좋아하는구나' 싶어 신바람이 났고 그럴수록 더 책을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난다.

더구나 금년 봄 수필식의 전공서를 펴냈을

때 한결같이 서평이 “어쩌면 정교수는 아는게 그리 많고 글을 재미있게 쓰느냐”는 칭찬이어서 역시 ‘독서덕’하고 우쭐했었다. 그러기에 추석날 일곱시간의 성묘길에 운전대를 잡고 책을 읽어대 수많은 운전자들의 눈초리를 받고선 ‘봐라 교수여서이기도 하지만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는 이색적인 자부심을 남몰래 즐겼던 터다.

탈렌트처럼 잘생겼다거나 개그맨처럼 천성적으로 사람들을 웃겨 인기를 모으는 사람이라면 모르거니와 변변치 못한 형편이라면 모름지기 책을 많이 읽을 일이다. 무엇보다도 남, 여학생 한테서 큰 인기를 모을 수 있다는 데야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

(정현석/성신여대 교수)

□ 싱그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청소년기는 나무의 일생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막 벌려는 꽃봉오리쯤이 아닐까 싶다. 꽃봉오리는 자체로도 고풍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나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다. 한송이 꽃으로 만개(滿開)하려면 아직 폭염(暴炎)의 세월을 견뎌야하고 더욱이 탐스런 과실로 영글기 위해서는 사나운 광풍(狂風)도 헤쳐내야 한다.

한데도 안타까운 것은 갓 맺은 봉오리가 그 고운 태깁만큼이나 여리듯이 청소년의 마음도 다가오는 모진 운명을 이겨내기에는 다치고 상처받기 쉬움기만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 주위에는 책이 있다.

책은 누대를 살아온 선인들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혜(智慧)의 보고(寶庫)다. 책의 외향은 한낱 잉크 바른 종이몽치에 지나지 않으나 다시보면 그 안에는 험한 길로 나서

는 청소년을 위한 무수한 등불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선친께서 교육자였던 나는 어릴때부터 비교적 많은 책을 읽으며 자랐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두 권을 든다면 하나는 「어린왕자」이고 또 하나는 좀 생소할런지 모르나 「들어라 양키들아」라는 책이다.

생뉘쥘페리의 「어린왕자」에서는 ‘마음의 눈’이라야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존재는 ‘길 들여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새길 수 있었다면, C.W. 밀즈의 「들어라 양키들아」에서는 하나의 사회현상을 놓고 상반된 이해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라며 사물의 인식은 결만 보아서는 안되고 이면이나 반대면 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중견정치인이 된 지금도 고마운 지침이 되어 주고 있다.

한 정당이 원내총무로서 시간에 쫓기는 요즈음은 솔직히 책을 가까이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을수록 활동을 위한 에너지 충전은 더욱 필요하다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촌음을 아껴 잠을 내고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함은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정신적 자양(滋養)이 필요하다는 뜻일게다. 봉오리가 꽃피고 싱그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 나무의 자양이 흙 속에 있다면 청소년의 자양은 바로 책안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철/민주당 원내총무)

□ 명심불망 하사불성

책읽는 곳이 따로 있지 않듯이 책읽는 시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독서는 사람들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교양을 넓혀주고 또한

지체롭게 해주는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독서를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이러한 독서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람되게 살아가려면 우선 사물의 진리(眞理)를 알아야 한다. 이 진리를 배우고 익혀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행위는 습관화된 좋은 독서생활 뿐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알려고 하는 욕망이 제일 왕성한 젊은 시절에 될수록 많은 독서를 하여 배운것을 몸에 지니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책은 곧 몸을 맡기는 근본이다(書는 修身之本이오)”고 하였다. 또 「직언결(直言訣)」에 이르기를 “초를 만드는 것은 밝음을 구하기 위함이요, 독서는 진리를 구하기 때문이다(造燭은 求明이오 讀書는 求理니라)”고도 하였다.

이것은 바로 밝은 빛으로 어두운 방을 비추도록 하고 진리로 마음을 비추도록 해야 함을 일깨워 준 말이다. 인생관은 사람의 기질과 성격 또 환경과 시대에 영향을 받고 또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참다운 인생관은 역시 청소년 시절에 좋은 독서의 생활화로 그 기틀을 잡아야 한다.

6.25전쟁의 와중과 전후(戰後)였던 나의 청소년 시절은 지금처럼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서적이 풍부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껏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구약성서 중의 지혜의 서(書)에 해당되는 잠언(箴言)의 말씀들이다. 여기에는 시형(詩形)의 많은 격언, 교훈, 도덕률이 들어있어 도덕원리에 관한 지식과 올바르게 살기 위한 실천적이고 또 규범적인 지식에 도움이 되는 영지(英智)를 그 대상으로

하고있어 감명을 받았다.

선친(先親)께서 생전에 늘상 읽고 나의 책 안표지에 써주시곤 하셨던 ‘명심불망 하사불성(銘心不忘 何事不成: 마음속에 새겨두고 잊지 아니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리)’은 지금까지 독서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어 늘상 펼쳐 보게 한다.

(리수용/한양대 물리학과 교수)

□ 나의 「짜라투스트라」

나의 십대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때는 떠도는 돌맹이 같은 신세였다.

청소년기에는 방황하기 쉽고 정신적 방황은 공간적으로 방황하는 떠돌이 생활을 마다하지 않게 한다. 내가 집에 잘 붙어 있지 못한 것은 그런 떠돌이 방랑벽 때문이었고 그 원인은 정신적으로 헤매다니는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래에 대한 잡히지 않는 그리움, 미래가 확연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정신력이 투철하지 않기 때문이며 미래를 향한 의지력이 아직 강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방황과 방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벨아래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강변이나 산기슭에서 고독한 사색에 잠기기도 했으며 책속에 나를 파묻기도 했다. 불경, 성서, 영웅전, 시집 등 나의 탐독하는 버릇은 그때 길들여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많은 독서를 하다보면 책과의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된다. 내 경우가 바로 그랬다. 대학 2학년 시절 지금은 없어진 대학로의 개천가 쓰러져가는 헌책방에서 우연히 나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손에 쥐

게 되었으며 그 길로 내 자취방에 돌아와 밤을 새워 그 철학적 에세이 혹은 잠언 시집을 읽어 나갔다. 나의 짜라투스트라¹는 나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초인의 사상, 의지의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는 내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것처럼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하는 식으로 새로 도전한다. 도전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도전의 자세를 꼴뽕히 하는 법을 되풀이할 수 있게된 것은 바로 내 「짜라투스트라」 때문이다.

(이상일/성균관대 독문학과 교수)

□ 도서실의 여학생

목마른 사슴처럼 갈구(渴求)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젊은이의 꿈. 희망과 기쁨을 함께하는 그들은 인생의 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그 아름다움을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찬(禮讚)해 왔다.

그러나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소용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령 공작새라든지 백합꽃은 아름답기 비할데 없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는 곧 걸만 아름답게 꾸미고 속은 보잘것 없는 것이라면 어찌 아름답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나무에 진정한 열매를 열게 하는 것은 청소년 시절에 그를 움직이게 한 힘일 것이다. 1949년 12월 어느날 시장거리 고서점(古書店)에서 “해”라는朴斗鎭 선생의 시집

이 눈에 띄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양게 씻은 고은
해야 솟아라……”

귀절마다 연상되는 위대한 자연의 신비함과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던 당시의 정서가 지금도 기억난다. 삶의 욕구가 무수하고 상처를 받아 가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생활에서 한편의 시로 인해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를 간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반드시 영예(榮譽)나 부(富)가 아닐지라도 삶의 의욕과 질(質)을 높이며 윤락을 누릴 수 있는 내재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다.

이제 젊은이 들도 시간이 바빠졌다. 조용한 시간을 갖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래서 양서(良書)를 가려서 읽는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훌륭한 내용과 가치와 생명을 지닌 영원한 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생명과 부딪치면서 뜻을 세우고 이상을 찾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이 어두어지면 학교는 조용해진다. 그러나 도서실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고 여학생 몇명이 독서에 몰두하고 있다. 시간도 잊은듯 자신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일심불란(一心不亂)의 순간임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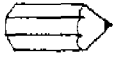
(엄익대/홍성여중 교장)

*심화자료 : ‘손에는 책을, 마음에는 꿈을’,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성취수준

나는 :

아주 잘 됨 잘 됨 보통 안 됨 아주 안 됨



- 사전에 주제에 관련된 적절한 명사를 선정하였다.
- 사전에 집단의 욕구와 흥미, 강의시간제한 등에 관하여 강사와 충분히 논의하였다.
- 참여자의 인원수에 따라 적절하게 자리를 배치하였다.
- 음향시설이나 기타 필요한 설비물을 점검하고 준비하였다.
- 강사를 소개하고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 강의를 마치면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 기타(활동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참 고 문 헌

독서지도연구회(1989), 독서지도사전, 서울 : 경인문화사.

서울교사협의회(1989),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권할까, 서울 : 돌베개.

MBC 프로덕션(1991), MBC 비디오 가이드.

우리교육(1992), 가을에 다시 시작해 보는 학급 문고, 우리교육, 9, 168~171.

YMCA(1992), 청소년을 위한 좋은 비디오 120.

Burner, J.S.(1987),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Harvard Univ. Press.

Donmoyer, S.(1985), "The rescue from relativism : two failed attempts and an alternative strategy", *Educational researcher*.

Haberman, J.(1978),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Shapiro, J., trans.) London : Heinemann.

Kelly, G. A.(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 W. W. Norton.

Lincoln, S., & Guba, 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Inc.

Phillips, D. C.(1983), "After the wake : postpositivistic educational thought", *Educational researcher*, 12, 4.

Runes, D. (ed)(1983), *Dictionary of Philosophy*,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Inc.

Toulmin, S.(1961), *Foresight and understanding*, New York : Harper and Row.